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03. 17(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강보원(정안), 김봉렬, 남해경, 박경립, 이재인,
정명섭, 정은우, 홍성걸, 홍승재 (이상 9명)
- ▣ 안 건 : 총 22건
 - 심의 15건 : 원안가결 5건, 조건부가결 7건, 부결 2건, 보류 1건
 - 검토 6건 : 원안가결 2건, 부결 2건, 보류 2건
 - 보고 1건 : 원안접수 1건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부안 개암사 대응전 주변 공양간 신축(재심의)	공개
2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오피스텔 신축	공개
3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 중흥사지 내 만세루 등 복원	공개
4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주변 공양간 개축	공개
5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재심의)	공개
6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7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진입도로 개설	공개
8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9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부지조성	공개
1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신축	공개
11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영산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 조성	공개
12	김천 직지사 대응전 주변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건축물 조성	공개
13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서울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 장소사용허가	공개
15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목부재 시편 채취	공개

【검토사항】

16	제주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7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3차)	공개
18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2차)	공개
20	전주 풍패지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공개
21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매각에 따른 불상 이전 타당성 검토	공개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예초기 보관용 창고 설치
-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방송통신중계기 설치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증축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사과나무 식재
-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주변 명봉리 진입로 및 편의시설 정비
-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허가사항변경)
-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정비
-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683-4번지)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683-5번지)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683-6번지)

22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3-001

1. 부안 개암사 대응전 주변 공양간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개암사 대응전」 주변에 공양간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양간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2.1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개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부안 개암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00여m(보호구역 내임)
 - 사업내용 : 공양간 신축
 - 건축면적 : 97.2㎡
 - 구조 등 : 전통한식목구조, 맞배지붕, 높이 6.23m

라. 현지조사의견(2016.03.09)

- 본 건은 사찰 템플스테이 사업에 따라 편의시설로써 공양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입공간에 공양간 건립은 사찰 배치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공양간 위치 등이 적정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8명, 보류 1명

2.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오피스텔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다만,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8-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86m
 - 사업내용 : 오피스텔 신축(2~12층: 오피스텔, 13~14층: 다세대주택)
 - 사업대지면적 : 554㎡
 - 건축면적(연면적) : 392.59㎡(6,132.8265㎡)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4층, 지상14층 / 47.2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3.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 중흥사지 내 만세루 등 복원

가. 제안사항

경기 고양시 소재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에 중흥사지 내 만세루 및 대·승방을 복원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중흥사지 내 만세루 및 대·승방을 복원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시도지정문화재(경기 기념물 제136호 북한산중흥사지) 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중흥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5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60m
 - 사업내용 : 만세루 및 대·승방 복원
 - 만세루
 - 건축면적(연면적) : 114.66㎡(196.50㎡)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1층, 지상1층 / 8.32m

- 대·승방
 - 건축면적(연면적) : 260.46m²(260.46m²)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6.38m
- 석축 및 계단
 - 석축 : L=80m, H=3m
 - 계단 : W=6.9m, H=3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만세루는 원안가결
 - 대·승방의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4.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주변 공양간 개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옥천군 소재 보물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공양간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양간을 개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용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51-1
 - 지정일 : 2002. 03. 1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51-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공양간 개축
 - 기존 공양간 (일부)철거
 - 철거면적 : 1층(53.37㎡), 2층(21.92㎡)
 - 공양간 (일부)개축
 - 개축면적 : 1층(45.00㎡), 2층(43.61㎡)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붕 한식기와)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8.37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5.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포항시 소재 보물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2.1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1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35㎡(135㎡)
 - 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7.235m

라. 현지조사의견(2016.03.07)

- 일자형 복렬식 실배치 건물을 기자형 단렬식으로 수정하여 건물폭을 축소하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수정 보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6.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산3-1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65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57.17㎡(162.69㎡)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6.7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7.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진입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 경사지붕 최고높이 11m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녕군수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
 - 지정일 : 1970. 06. 2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09-6 외 6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60m
 - 사업내용 : 술정리 서 삼층석탑 진입도로 개설
 - 아스팔트 포장 : 497㎡ (L=57m, B=8m)
 - 절·성토 : -0.06m ~ +0.39m
 - 우수관로 매설 : L=72m, H=1.5m ~ 2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8.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보물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2인
- (2) 대상문화재 :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17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99번지 외 6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70m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신축
 - 대지면적 : 2,569㎡
 - 건축면적(연면적) : 487.65㎡(3,585.94㎡)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0층 / 28.96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9.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3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34-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70m
 - 사업내용 :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 대지면적 : 1,717㎡
 - 건축면적(연면적) : 656.95㎡(1,223.56㎡)
 - 옹벽 설치 : L형 옹벽 H=1.0~5.0m, L=63m, 역L형 옹벽 H=2.0~6.0m, L=95m
 - 절·성토 : -5.9m ~ +3.1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 이하-사역확인을 위한 유구조사 및 역사문화경관 고려 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3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07-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60m
 - 사업내용 : 숙박시설 신축
 - 대지면적 : 1,440㎡
 - 건축면적(연면적) : 538.18㎡(1,757.10㎡)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 및 높이 : 4층 / 13.6m
 - 절·성토 : -2.8m ~ +1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선행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1.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영산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주변에 영산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영산서원을 복원하고자 부지를 조성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양군수
- (2) 대상문화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398-5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302 외 6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70m
 - 사업내용 : 영산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 조성
 - 대지면적 : 5,532㎡
 - 건축면적(연면적) : 11동 379.39㎡(427.31㎡)
 - 자연석 석축 설치 : H=4.0m, L= 35m
 - 절·성토 : -3.5m ~ +2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2.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건축물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공원 건축물을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경사지붕 7m 이하”, 제3구역 “경사지붕 12m 이하”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7.18) : 조건부 가결
 - 시설물 분야는 개별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천시장
- (2) 대상문화재 : 김천 직지사 대웅전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00m
 - 사업내용 :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물 조성
 - 대지면적 : 143,695㎡
 - 건축면적(연면적) : 6,866.22㎡(12,359.90㎡)

· 세부내역

구분	허용기준	명칭	층수	최고 높이 (m)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	구조
1구역	원지형보존	평화의 탑	지상5층	43.4	1동	166.41/ 619.61	목구조
2구역	경사지붕 7m 이하	평화의 탑 전시관	지상1층 지하1층	6.72	1동	1,256.04/ 2,361.94	한식목구조 + 철근콘크리트
		문화박물관	지상2층 지하1층	12	1동	1,975.35/ 4,954.13	철근콘크리트 구조
		문화체험촌	지상1층	7.28	6동	559.71/ 559.71	한식목구조
		솔향다원	지상1층	5.48	3동	169.29/ 169.29	한식목구조
		안내센터	지상1층	5.01	1동	120.42/ 120.42	한식목구조
3구역	경사지붕 12m 이하	전통한옥촌	지상1층	5.45	19동	1,845.72/ 1,845.72	한식목구조
		단체숙박동	지상1층	5.82	4동	817.56/ 763.20	한식목구조
		건강문화원	지상1층 지하1층	5.76	1동	773.28/ 1,729.08	한식목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8명, 조건부가결 1명

13.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 원주시 소재 보물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7.5m 이하-농업인 주택에 한함”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 소재지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2
 - 지정일 : 1968. 07. 0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456-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42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45.44㎡(145.44㎡)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7.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4. 서울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 장소사용허가

가. 제안사항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 추진을 위하여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숭례문」 장소사용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
 - 숭례문 수문군 파수·순라·교대의식 재현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 (2) 대상문화재 : 서울 숭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숭례문 파수의식 및 순라·교대의식 재현행사 추진
 - 시행기간 : 2016. 4월~12월(10:00~16:30)
 - 시행장소 : 숭례문 남측광장
 - 주요내용 : 파수군을 2조로 편성하여 수위근무, 교대의식, 순라행렬 진행
 - 세부내용 : 수위의식(8명, 30분 간격/일1회), 교대·순라의식(39명, 16:00~16:15/일1회)
 - 주최/주관 : 서울시/(주)예문관

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의견

- 승례문 파수·순라·교대의식 재현을 통해 우리 고유의 역사를 보존·활용하는데 이바지하고,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과 더불어 남대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정확한 고증과 안전을 위하여 검토의견대로 “승례문 교대의식 재현행사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5.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목부재 시편 채취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문화유산 융복합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수종에 대한 연구」 관련, 목부재 시편 채취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내용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문화유산 융복합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수종에 대한 연구」와 관련, 1차년도 조사대상인 중요 향교 및 서원 건축문화재 총 보물 38건의 목부재에서 분석용 시편을 채취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대상문화재 :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등 총 38건(붙임 참조)
- 사업기간 : 2016. 5월 ~ 12월(8개월)
- 사업예산 : 250백만원
- 추진방법 : 대상문화재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구조재 전수조사

구조재	건물 뼈대를 형성하는 부재	기둥, 보, 도리, 창방, 평방 등(연목 제외)
-----	----------------	----------------------------

(2) 심의내용

- 대상문화재 목부재 시편 채취
 - 구조재(기둥, 도리, 대량, 창·평방 등)를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채취함.

- 시편크기 : 5×5×5mm 이하
- 시료채취도구 : 의료용 소도구, 면도날 이용
- ※ 시료채취는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채취함.
- ※ 「중요 궁궐 및 관아 건축문화재 수종에 대한 연구」(‘14~’15) 관련, 건축문화재분과 회의(2014년 9차/14.08.21)에서 조건부 가결됨.

(3) 향후 계획

- ‘16. 5 ~ ’16. 12 : 1차년도 연구용역 수행 및 완료
- ‘17. 3 ~ ’18. 12 :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수종분석에 대한 연구(2,3차년도)」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궁궐 시편 채취에 준하여 시행하되 사찰의 경우 불교 종단과 협의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붙임 :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수종분석 대상목록(1차년도) 1부. 끝.

【붙임 1】 중요 사찰 및 향교 건축문화재 수종분석 대상목록(1차년도)

연번	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분야	소재지	비고
1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향교	서울	
2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누(정).각	경남도	
3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고가	강원도	
4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누(정).각	경상북도	
5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누(정).각	강원도	
6	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고가	대전	2013년 조사
7	보물	제210호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서원	경상북도	
8	보물	제211호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	서원	경상북도	
9	보물	제213호	삼척 죽서루	누(정).각	강원도	
10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향교	강원도	
11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향교	전라북도	
12	보물	제281호	남원 광한루	누(정).각	전라북도	
13	보물	제289호	정읍 피향정	누(정).각	전라북도	
14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고가	경상북도	
15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누(정).각	제주	
16	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시당·담장	서원	대구	
17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향교	전라남도	2008년 조사
18	보물	제411호	경주 양동 무침당	고가	경상북도	
19	보물	제412호	경주 양동 향단	고가	경상북도	
20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고가	경상북도	
21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총효당	고가	경상북도	
22	보물	제442호	경주 양동 관가정	누(정).각	경상북도	
23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고가	경상북도	
24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고가	경상북도	
25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누(정).각	경상북도	
26	보물	제521호	영천 송렬당	고가	경상북도	
27	보물	제528호	제천 청풍 한벽루	누(정).각	충청북도	
28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총효당	고가	경상북도	
29	보물	제554호	달성 태고정	누(정).각	대구	
30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향교	경상북도	
31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누(정).각	전라북도	
32	보물	제1244호	완주 송광사 종루	누(정).각	전라북도	
33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서원	경상북도	
34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서원	경상북도	
35	보물	제1568호	상주 양진당	고가	경상북도	
36	보물	제1569호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서원	충청남도	
37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향교	경상북도	
38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향교	경상북도	
39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서원	충청남도	
40	보물	제1825호	의성 만취당	고가	경상북도	
향교 및 서원건축 총 40건(보물 40건) 중 38건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3-016

16. 제주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제주시 소재 「제주향교 대성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제주시에 소재한 「제주향교 대성전」을 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호 「제주향교」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98-1번지
 - 지정일 : 1971. 08. 2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제주향교 대성전(濟州鄉校 大成殿)
 - 소유자(관리자) : (재)제주도향교재단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98-1번지
 - 조성연대 : 1789년(重修), 1827년(移建)
 - 지정면적 : 155㎡(보호구역 12,490㎡)
 - 양 식 : 목구조, 팔작지붕, 이익공

라. 현지조사의견(2015.11.12)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11.12	대상문화재	제주향교 대성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제주향교 대성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3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제주향교¹⁾는 용담사거리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서문사거리에서 서쪽으로 약 300m 정도 거리에 있다. 현재 위치는 최종 이건지로 바로 앞에 있는 제주중학교²⁾의 운동장 좌측 뒤편 구릉지를 배경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동향으로 앉아 있다. 원래 이곳은 자연 수림의 풍광이 매우 뛰어난 경승지로 옛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계성사와 대성전 뒤편의 울창한 큰 소나무 숲이 이룬 배후경관이 돋보인다.

향교는 읍성 밖에 있는 경우 동·북·서·남 순으로 대개 1~3리 거리에 위치하거나 성안에 있기도 한다. 제주향교는 5차례의 이건³⁾이 있었으나 모두 향교의 일반적인 입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향교에서 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옛 제주읍성의 서성문(西城門) 유적이 있으며, 약 600m 거리에는 제주시의 대표적 문화유산 중 하나인 제주 관덕정(濟州 觀德亭)⁴⁾ 및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⁵⁾가 도심 속의 주요한 역사문화공간으로 큰 영역을 이루고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제주향교는 태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태조 3년(1394)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 이후 **세종 17년(1435) 중건**, 세조 12년(1466) 명륜당 중수, 중종 31년(1536) 명륜당 중수⁶⁾, 선조 15년(1582) 1차 이건, 현종 원년(1660) 장수당(藏修堂) 창건, 현종 9년(1668) 2차 이건, 경종 4년(1724) 3차 이건, 영조 31년(1755) 4차 이건, 정조 22년(1798) 대성전 중수, 순조 27년(1827) 5차 이건, 철종 원년(1850) 동·서무 중수, 철종 5년(1854) 계성사(啓聖祠) 창건, 고종 9년(1871) 문묘 및 동·서무 중수, 고종 20년(1883) 명륜당 중수, 광무 원년(1897) 대성전·계성사·신삼문 중수, 1918년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재 중수, 1929년 문묘 보수, 1945년 문묘 중수하고 ‘제주학원’ 설립, 1946년 제주초등중학교(6학급) 설립, 1948년 제주도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제주중학교로 운영,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 온 대학들이 명륜당에서 ‘한국대학연합’을 운영, 1951년

1)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호(1971년 지정)

2) 제주초등중학교(1946년)이던 것을 1948년 제주중학교로 개칭했다.

3) 창건(성내), 1·2·3차 이건(성내), 4차 이건(성 밖 남쪽), 5차 이건(현재 위치)

4) 보물 제322호(1963년 지정)

5) 사적 제380호(1993년 지정)

6) 성균관과 같은 규모로 중수함.

동·서무 **훼손**하여 매안하고 제주대학원(濟州大學園) 설립⁷⁾, **1955년 대성전·명륜당 보수**, 1965년 명륜당 소실. 1969년 명륜당 신축⁸⁾과 전사청 보수, 1974년 계성사와 대성문 대중수, **1976년 대성전 대중수**, 1977년 교직사 신축, 1985년 공자상과 행단정(杏壇亭) 건립, **1989년 대성전 삼문 해체보수**, 1991년 전사청 해체보수, 1996년 명륜당 보수 및 주변정비, **2000년 대성전 중수**, 2001년 명륜당 목조로 개축, 2008년 계성사 담장 보수가 이루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배치 : 최종 이기지인 현재 위치에 자리 잡은 건물 중 일부의 배치는 이견 당시와는 다르다. 지금은 서쪽 출입문(대성문)을 들어서면 제향공간(대성전, 신삼문, 3개 협문)이 우측 북쪽에 별곽을 이루고 그 좌측 남쪽에 강학공간(명륜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두 공간 사이의 뒤편 높은 곳에 계성사가 일곽(삼문, 협문)을 형성하고 있다. 계성사 우측 편에는 공자동상, 좌측 편에는 전사청이 있고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의 중앙부에 행단정이 배치되어 있다. 대성문 밖 좌측에는 하마비를 세워놓고, 우측에는 교직사를 두었다. 현재의 배치형식은 좌묘우학(左廟右學)이나 창건 당시와 오히려 환건 한 때는 전묘후학(前廟後學)⁹⁾이었으며, 지금 자리로 이건설 당시는 전학후묘(前學後廟)¹⁰⁾였다. 이견 당시의 모습대로 남아 있는 것은 대성전 건물과 계성사 일곽이고 대성전의 신삼문은 위쪽으로 옮겨졌다. 동·서무와 동·서재 그리고 홍살문 등은 멸실되고 없다.

한편, 계성사(啓聖祠)는 대성전에 봉안되는 5성의 선고위패(先考位牌)를 모시는 사당이다. 현재 제주·전주향교에만 있고, 지금은 없어졌으나 서울의 성균관과 나주향교 그리고 개성 성균관에도 있었다. 또한 명륜당의 평면구성과 지붕형식도 성균관과 나주향교와 거의 같다. 이렇듯 제주향교는 다른 향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소가치가 큰 고유성을 지닌 제주도의 대표적인 귀중한 유교건축문화유산으로 꼽힌다.

대성전 : 완만한 경사지의 정면에 신삼문, 좌측면에 협문 둘, 우측면에 협문 하

7) 국립 제주대학교 호시가 됨.

8)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

9) 숙종 28년(1702) 때 그림 제주조점(濟州操點)과 건포배은(巾浦拜恩)에 보이는 문묘 위치와 지형이 평지인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성균관을 비롯 조선 초기의 주요 읍치에 건립한 경주·전주·나주향교 등에서 볼 수 있다.

10) 등도해치랑(藤島亥治郎)의 한국문화재보존고 -제주도의 건축-(韓國文化財保存攷 -濟州道の 建築-)의 기록을 보면 홍살문-외삼문-명륜당 일곽-대성전 일곽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그 안쪽 언덕 위에 계성사 일곽이 있었고 명륜당과 대성전 전방에는 각각 동·서재와 동·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를 낸 일곽의 뒤편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신삼문을 들어서면 이중식 기단 위에 건물 규모에 비해 낮은 기둥, 비교적 길게 내려진 처마와 완만한 지붕물매가 이룬 가라앉은 듯 장중한 첫 모습이 생경함을 느끼게 한다.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인데, 측면의 전후 2칸은 텃간이다. 건물 네 우주 바깥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례를 받치는 활주 위치보다 안쪽에 활주 같은 세장한 텃기둥 4본이 있고, 배면 기둥 뒤편에도 거의 동일한 굵기의 텃기둥이 세워져 있다. 이들 중 배면의 텃기둥은 공포의 초익공 살미를 자르고 다시 짜 맞춘 것으로 보아 후설 한 것이라 판단된다. 우주부의 텃기둥은 제주도의 제주와 대정향교에서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내부에 내진 고주를 세운 전·후퇴형은 제주향교가 유일하다. 이는 제주도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읽게 하는 아주 귀한 모습이다.

내부는 강회다짐 바닥으로 마감하고 공자의 위패와 영정을 중앙 정위에 봉안하고 그 앞 좌측으로 4성과 10철·송조6현·우리나라 18현을 봉안하고 있다.¹¹⁾ 바닥은 제주향교의 건립 시기로 보아 전돌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¹²⁾ 기단은 현무암 장대석을 외벌대로 쌓고 그 앞쪽에 기단 폭 만큼 세벌대 높이의 석축을 한 단 더 쌓았다. 이중 기단처럼 보이는 석축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은 비교적 넓은 배례 공간으로 중앙과 좌·우측 세 곳에 계단이 있고 우측 계단 옆에 정료대가 있다. 별도로 마련한 배례공간은 극히 드문 예로 마치 나주향교 대성전 앞쪽에 월대처럼 쌓은 것과 유사하다. 중앙 계단은 신삼문에서 시작되는 신도와 이어져 있다.

정면 외진주에는 낮은 원형 초반 위에 고행(鼓形) 초석을, 네 모서리 텃기둥은 높은 초반 위에 주형(柱形) 초석을, 내진주에는 덩빙초석을, 배면의 후설 기둥은 낮은 원형 초반 위에 원형 초석 두 개를 겹친 높은 주형 초석을 놓았다. 기둥은 모두 원주이고 내진고주 8본과 평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모서리 텃기둥은 외목도리 뿔목 직교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주간에 비해 주고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텃기둥은 상부가 동바리처럼 짧게 이어진 특이한 형상이다. 짧은 부재 상부는 초방으로 맞추고 그 밑에 물방울 모양의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문양 바로 밑의 이어지는 곳에는 수장재 규격의 짧은 교두형 방재를 십자형으로 끼워 의장적 효과를 갖게 했다. 문양은 토속적 신앙요소가 부가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의

11) 제주향교는 원래 대설위 향교였으나 나머지 위패는 동·서무가 없어지면서 매안(1951년)했다.

12) 경주(12세기 초)·상주(13세기 후반)·나주향교(14세기 후반) 등에서 볼 수 있음.

경주향교는 현재 장마루이나 아래에 전돌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다.

미는 알 수 없다. 문양과 교두형 부재는 다소 부자연스럽고 전형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동일한 덧기둥을 세운 대정향교에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창적이라는 점에서는 제주향교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벽체는 회사벽으로 하고 정면에만 창호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창 없이 중방까지 두꺼운 화방벽으로 막아서 실내 공간을 엄숙하게 하였다. 정면 창호는 어칸에는 4분합굽널띠살 문, 협칸에는 미들기 정자살 창, 퇴칸에는 쌍여단이 굽널띠살 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면 창호 구성을 문+창+문+창+문으로 한 형식¹³⁾은 시대를 올려 볼 수 있는 고식에 속한다.

공포는 외1출목 이익공계로 주간에는 3소로화반이 1구씩 놓여 있다. 구성을 보면 주두 밑에 초익공을 끼우고 출목 간격을 상당히 길게 하여 침차를 엮어 행공과 주두 위에서 십자로 짜 맞추어 뺀 이익공을 받게 했다. 두 익공의 길이가 아주 긴 편인데¹⁴⁾, 초익공이 이익공보다 이색적으로 길다. 뿐만 아니라 두 익공의 뒷단이 일반적으로 한 몸을 이루며 보아지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초익공 뒷단을 이익공보다 더 길게 나오게 하고 그 위에 동자주 같은 부재를 세우고 이익공의 짧은 뒷단이 이 부재에 이르게 하여 보를 받치도록 하였다. 연화두형으로 초각한 익공의 촛가지 모양새가 수서형이나 수평으로 길어서 어색하게 느껴진다. 귀공포는 여느 공포 구성처럼 귀한대를 두지 않고 출목 뺄목을 길게 하여 그 하부에 덧기둥을 세워서 추녀 부분을 받게 했다. 귀공포를 받는 우주를 귀한대 없이 낮추고 출목 간격을 넓게 한 것은 최대한 처마를 길게 내리기 위함이다. 처마를 이렇게 꾸밈으로써 햇볕과 비바람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는 제주 민가의 풍채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 화반은 대개의 경우처럼 소로를 끼우는 것과는 달리 소로 3개를 엮고 행공과 비슷한 형태로 한 것은 고식에 속한다. 또한 주심도리와 출목 도리 사이에 순각판을 시설하지 않고 서까래를 노출 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이상의 공포 짜임은 타 지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여러 점이 매우 특이하며 독창적이다.

상부 가구는 2고주 7량 가로 대량 위에 사분변작하여 포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는 침차형 부재를 끼워 고급스럽게 장식한 파련대공을 놓

13) 성균관과 나주향교와 같은 모습인데, 다만 문이 판문이란 점이 다르다.

14) 일견 봉정사 화엄장당(보물 제448호) 주심포계 양식의 촛가지가 과도할 정도로 길게 뺀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아 종도리를 지지토록 했다. 대들보와 종보의 단면형은 고식의 향아리형¹⁵⁾에 가깝고 보머리의 초각 생김새도 혼치 않은 모습이다. 양측면의 합각부 아래는 이익공 위에서 뻗어 오른 층량을 대들보에 걸치는 전형과 달리 외기도리 밑에 비교적 큰 단면의 뜬창방을 가구하고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서까래는 하중도리까지 내려온 단연과 처마까지의 장연의 길이 차이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서 서까래와 지붕면의 물매가 타 지역과는 달리 완만하다.

옥개부는 겹처마로 구성하고 대부분 박공지붕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합각지붕¹⁶⁾을 얹었다. 합각지붕임에도 불구하고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이 타 지역에 비해 약하며, 또한 비교적 넓게 잡은 내진고주에 가깝게 설치한 합각의 위치 때문에 합각벽면이 낮고 작다. 이는 강한 풍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보인다.

단청은 현재 모로 단청이나 화려한 문양으로 단청이 시채되어 있지 않았다는 1973년 ‘제주도 유적조사보고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원래는 지금보다 소박한 단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⑤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는 14세기 후반에 건립한 대설위 향교로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을 당시의 모습을 일부 잃고 있지만 대성전은 옛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틈간을 넓게 한 평면구성, 높은 초석, 낮은 기둥 높이, 독특한 공포와 가구구성, 처마와 합각지붕의 형식 등은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뚜렷한 독자성을 읽게 하는 독창적인 건축양식이다.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월대 같은 배례 공간과 고식의 정면 창호 구성과 대들보 단면 형태 등도 돋보인다.

따라서 제주향교 대성전은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5)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장곡사 상대웅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6) 제주도 3개소 향교(제주·대정·정의)와 8개소 향교(성균관, 나주, 서산, 지도, 영덕, 진주, 산청, 칠원)만 합각지붕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11.12	대상문화재	제주향교 대성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제주향교 대성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3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연혁

제주향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김처례(金處禮) 구향교비(舊鄕校碑)에 ‘태조원년 壬申에 학교가 이루어지고 세종 17년(1435) 乙卯에 학교를 재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태조 3년(1394) 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이때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태조 3년 3월 27일조에 도평의사사에서 ‘제주에는 일찍이 학교가 설치되지 않아 자제들이 나라에 들어와 벼슬하지 아니하여 글자를 알지 못하고 법제도 알지 못하며, 각소의 천호들이 대개가 어리석고 방사(放肆)하여 폐해를 끼치니 지금부터 교수관을 두고 토관의 자제 10세 이상을 모두 입학시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을 상언하고 왕은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으로 볼 때 태조 3년(1394) 이후에 향교가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제주향교는 초기에 관관이 교수관을 겸임하였으나 1418년에 전임 유학교수관(儒學教授官)을 임명하였다. 당시 주(州)와 임내(任內)의 유생수가 200여명으로 제주향교는 이미 학교로서 교육이 왕성하게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20년에 대정과 정의현에 향교가 설립되어 제주에는 3개의 향교가 있게 된다.

제주향교는 처음에 관덕정에서 동쪽으로 1리 정도 떨어진 가락천 서안 교동(校洞, 생깃굴)에 자리하고 있었다. 선조 15년(1582)에 목사 김태정이 향교가 관덕정 과녁에 가깝고 어염집들 사이에 위치하므로 송경의 뜻을 다 못한다하여 가락천 너머 읍성 동남쪽 모퉁이 지경(일명 고령밭)으로 이군하였다(1차 이군). 현종 9년(1668)에 목사 이인(李瑣)이 다시 원위치로 옮겼으며(2차 이군), 경종 4년(1724) 목사 신유익(愼惟益)이 제주성내 대화재로 향교가 소실되자 가락천 동쪽 옛터인 지경(고령밭)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3차 이군). 영조 31년(1755) 목사 홍태두(洪泰斗)는 향교가 있는 곳이 너무 습하다하여 읍성 남쪽의 광양으로 이군(4차 이군)하였는데 이때 향교터는 지금의 삼성초등학교 자리로 추정하고 있다.

1827년(순조 27)에 목사 심영석(沈英錫)은 광양은 주변이 허하고 바람이 많아 면학에 적합지 않다하여 다시 이전할 것을 품신하여 후임 목사 이행교(李行敎)

가 서문밖 용담동 현 위치로 이견하여(5차 이견) 오늘에 이른다. 이처럼 제주향교는 5번의 이견과정을 거쳤다.

이건 후 각 건물의 중수와 건립 등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50년에 목사 장인식(張寅植)이 동서무를 중수하였으며, 1854년에 계성사를 창건하였다. 1871년에 문묘와 동,서무 중수, 1883년에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대성전은 1897년, 1918년, 1945년에 중수 기록이 있으나 자세한 중수내용을 알 수 없다. 제주향교는 1965년에 누전으로 명륜당이 소실되면서 편액과 소장 도서들이 灰塵되어 관련 사료들이 충분치 못하다. 1945년에 ‘제주학원’을 설립하고 1946년에 경내에 제주초등중학교를 개교한다.

1970년에 대성전 남쪽에 RC조로 명륜당을 신축하였다. 대성전은 1976년과 2000년에도 중수가 있었다. 1976년 중수는 특별하게 대중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공사 자료를 보면 공사 내용에 전면해체공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준공내역서와 도서 등을 통해 간단한 당시 공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경비는 국고(350만)와 시비(350만), 자체경비(300만) 포함 총 1,000만원이었다. 세부 공사는 목공사, 지붕공사, 단청공사, 기단공사로 구분되는데 지붕은 전면 해체하여 부식된 연목 등을 교체(90%)하고, 번와가 이루어졌다. 축부는 전면 해체하지 않고 부식된 기둥 하부 동바리를 위한 드잡이 공사를 위해 벽체만을 해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기둥 8본에 대한 동바리작업이 이루어졌다. 기단은 해체하여 재설치하고 새롭게 단청공사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기존의 명륜당을 해체하고 그 위치에 명륜당을 신축하였다.

2. 입지와 배치

조선시대 제주에는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읍에 향교가 있었다. 3읍의 향교 모두 처음 장소에서 이견되어 창건시의 배치 모습을 유지하는 곳이 없다.

제주향교는 1827년에 현 위치인 제주도 용담동에 이견되었다. 주변에는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이 인접하여 있고 내삼문 동측에는 제주중학교가 현재 자리하고

있다. 부지는 전체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대성전을 위시한 주요 건물들은 경사를 따라 동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현재 제주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계성사, 전사청, 대성문, 행단정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향교건축의 주요 영역인 문묘와 강학영역 중심으로 배치를 살펴보면 명륜당 영역과 대성전 영역이 좌우로 배치된 좌묘우학(左廟右學)의 형태이며, 두 영역 사이의 높은 곳에 계성사가 있다. 계성사는 주위에 담장을 둘러 별도의 영역을 이루며 전면에 계성문이 있고 향좌측 담장에 협문이 있어 전사청으로 연결된다. 또한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에는 1985년에 건립한 행단정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치 형태는 이건설 배치형태와 다른 모습이다.

원래의 배치형태는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가 1925년 4월경에 제주를 답사하고 쓴 다음의 글(韓國文化財保存攷, 日政期資料集成 - 濟州道の 建築)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홍살문을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면 외삼문이 나오고, 그 정면에 명륜당 일곽, 그 서남쪽에 대성전 일곽, 그 안쪽으로 구릉과 같은 언덕 위에 계성사 일곽이 있다. ... 명륜당은 주옥이 3칸이며, 각 3칸의 익사를 갖추었다. 명륜당 정면으로 좌우에는 낮은 재실이 전방으로 뻗어 전정을 에워싸고 있다. 대성전도 같은 형태로 정면에 대성전, 좌우에 가늘고 긴 무곽(廡廓), 그리고 전방에 3채의 문이 있어서 전정을 감싸고 있다”

제주향교는 본래 홍살문 - 외삼문 - 명륜당 - 대성전 - 계성사로 이어지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기본으로 대지의 형상에 맞추어 영역별 배치축을 동에서 서로 조금씩 이동하여 배치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형과 비교하면 현재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은 대성전과 계성사 일곽이다. 한편 훼손되어 없어진 건물은 동무와 서무, 명륜당과 동·서재, 외삼문, 홍살문이며, 대성전의 내삼문(神三門)은 원래 위치에서 안쪽으로 이동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46년 경내에 제주초등중학교(제주중학교) 개교 이후, 동·서무의 철거(1951), 명륜당 소실(1965)과 함께 1967년 향교 구내 일부에 제주중학교를 준치시키고 명륜당을 새로운 위치에 건설(1970), 행단정과 공자상을 건립(1985)하면서 이루어졌다.

3. 건축현황과 특징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공포는 1출목 이익공구조이다.

기단은 지형에 따라 상하 2중 기단으로 낮게 구성하였다. 건물을 직접 받는 상층기단은 1단이며, 여기서 4410mm 떨어진 전면에 하층 기단을 두벌대로 구성했다. 하층 기단 끝에는 한단의 보축석이 있으며, 어칸과 퇴칸의 중심축에 맞추어 계단석을 설치했다. 기단의 높이는 낮지만 단차를 둠으로서 하층 기단이 월대와 같은 공간적 느낌을 준다.

초석은 현무암을 원형으로 거칠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건물 안쪽의 고주 초석은 낮고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외진 변주와 침주의 초석은 높게 하였다. 건물의 바깥쪽은 초석받침 위에 1-2중으로 원형의 장초석을 덧대어 기둥을 받게 하였다. 우수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지방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4칸 구조이다. 현존하는 대성전의 정면 칸수는 3칸이 전체 80% 정도인데 제주의 세 향교 모두 대성전이 정면 5칸으로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전면은 모두 퇴칸을 개방하였으며 고주열에 맞추어 매칸마다 창호를 설치했다. 세 향교는 정면의 창호 구성도 유사하며, 정면을 제외한 삼면을 모두 현무암 화방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붕 또한 팔작지붕으로 동일한 구조이다. 육지의 향교 중에서는 서울문묘, 나주, 진주, 산청 등 7~8개의 대성전만 팔작지붕이고, 대부분은 맞배지붕의 구조인데 제주의 향교는 모두 팔작지붕인 것이 특색 중 하나이다. 그러나 측면 간살의 구성은 차이가 있다.

제주향교 대성전은 간살의 구성을 볼 때 3칸, 2칸의 규모에 전후 좌우 사방으로 퇴를 두른 구조이다. 정면과 측면의 퇴칸의 길이 (정면 2,550/2,613, 측면 2,301/2,276)는 정칸(어칸과 협칸)과 비교해 볼 때 퇴칸이 정칸의 0.74~0.83 정도가 되며, 특히 측면에서 전면 퇴칸 길이는 타지역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주칸을

길게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간살의 구성은 비바람으로 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상부 지붕구조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둥은 약한 민흘림을 주었으며 건물의 규모에 비해 높이가 낮고 세장한 느낌이다.

공포는 1출목 2익공구조로 4면에 동일한 형식의 공포양식을 취하고 있다. 기둥 머리에 초익공과 창방을 결구시키고 그 위에 주두를 얹어 이익공과 행공을 직교시키며 그 위에 보머리와 주심도리가 직교하여 올라 앉는다. 또한 초제공의 상부에는 출목첨차를 얹어 이익공과 소로를 올려 장혀를 받치고 있는 구조이다. 주심과 출목도리의 간격이 약 2척으로 타 건물에 비해 크다. 출목 간격이 이렇게 넓은 것은 러말선초의 주심포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처마 끝을 많이 빼기 위한 방법으로 익공구조에서는 거의 유래없는 수법이다. 다만 대정향교 대성전에서 초익공 구조이지만 유사한 수법을 볼 수 있다.

출목간격에 따라 초익공의 길이도 길어지고 건물 안쪽으로도 길게 뻗어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이익공 구조에서 초제공 보다 이제공이 더 길며, 제공의 내단은 두 부재를 이어지게 초각하여 하나의 부재처럼 퇴보를 받치는 보아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건물은 초제공이 이제공 보다 길며, 초제공 안쪽 상단과 퇴보 사이에 각재를 끼워 놓았다. 이것은 처마 하중으로 인하여 익공 쇄서가 바깥쪽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배면 공포에서는 외부에 첨주가 받치고 있어 이 부재가 없다. 이처럼 제주향교 대성전의 공포는 일반적인 공포의 구성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귀한대 부분은 귀제공이 짜여지지 않고 추녀 밑을 받치는 활주처럼 출목도리 밑에 귀첨주(덧기둥)을 세워 상부 추녀쪽의 하중을 받치고 있다. 대정향교 대성전에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출목 왕지도리를 덧기둥을 세워 떠받치는 구조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특색있는 제주 건축의 모습이다.

귀 첨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단일 부재가 아니고 기둥 머리 부분에 방재(枋材) 상단에 맞춰 두 부재가 이어져 있다. 윗 부재는 하부에 남방적이며 원시적인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타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이다. 여기에 주두를 얹어 출목 장혀와 도리를 받고 상부 추녀의 처짐

을 받치고 있다. 기둥이 이어지는 하부는 첨차 모양의 두 개의 부재가 십자로 끼워져 있는데 두께는 수장폭과 같다. 보수하면서 부식된 기둥을 잘나내고 이음부를 보강하며 의장적인 효과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사진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변화는 그 이전으로 시대가 올라간다. 한편 제주향교 대성전은 배면 기둥 밖에도 첨주를 세워 지붕의 침하를 막고 있다. 초제공 몸에 기둥머리가 끼워져 있으며 부재의 결구 모습 등을 볼 때 후대에 보강한 기둥임을 알 수 있다. 변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76년 대중수 도면에도 첨주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으로 보인다. 중수기록을 보면 그 해 기둥 하부가 썩은 배면의 기둥을 1자 내외 동바리 이음을 하였다.

가구는 2고주 7량가이다. 전후면 평주 위에 주심도리와 내진고주 사이에 퇴보를 연결하여 퇴칸을 구성하고, 고주 상부의 하중 도리 사이에 대들보를 걸었다. 그 위에 4분변작으로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으며 종보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서까래의 구성은 종도리에서 하중도리까지의 단연과 하중도리에서 처마까지 장연으로 구분된다. 하중도리에서 구분되기 때문에 단연과 장연의 길이 차가 거의 없다. 제주의 건축물은 대부분 7량구조이며 대부분 단연이 하중도리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타지역 건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서까래 물매가 타 지역보다 완만하다

제주 건축의 외관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붕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이다. 대성전의 처마도 앙곡과 안허리곡은 합각지붕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건축물에 비해 대단히 약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덕정을 비롯하여 민가의 와가도 비슷한 양상이다.

육지의 향교 대성전과 비교하여 제주향교 대성전은 외관상 규모에 비해 기둥이 낮고 지붕의 물매도 완만한 편이다. 팔작지붕이지만 합각면의 크기도 작고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도 세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지면에 달라붙듯 안정적이고 장중한 감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바람이 세고 비가 잦은 기후적 조건과 자연적 환경에 순응한 건축의 결과이며, 제주 향교 대성전은 제주건축의 지역적 특

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4. 조사자의견

1. 조선시대 제주에는 제주향교, 대정향교, 정의향교 세 향교가 있었다. 제주향교는 제주목의 향교로서 제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설립된 향교에 속한다.

2. 제주향교는 창건 후 5차례 이건하였으며, 1827년 현 위치에 이건 후 명륜당의 소실과 동·서무, 동·서 재실 등 일부 건물의 철해와 배치 등에 변화가 있었지만 대성전은 계성사와 함께 원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대웅전은 이건 후 중수 과정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건축의 가치를 훼손하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3. 제주향교 대성전은 대정향교 대성전, 정의향교 대성전 등 제주지역의 향교건축 및 타 지역 향교건축과 비교해 볼 때 향교건축의 보편적 특성과 타 지역과 구분되는 제주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 지정된 향교건축에 비해 건축년대가 떨어지지만 제주지역의 기후와 자연적 환경을 고려한 건축적 해결과 구법, 그 결과 육지의 건축과 구별되는 조형성 등 건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존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4. 제주향교 대성전은 몇 개의 기문 외에 자세한 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하다. 추후 보수과정에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건물의 원형과 변화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11.12	대상문화재	제주향교 대성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문화재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제주향교 대성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 년 3 월 7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제주향교는 제주시 용담동 29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제주읍성을 기준으로 서성문에서 서쪽으로 약 400m, 목관아에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당초의 영역은 현재의 향교영역과 제주중학교 부지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967년 명륜당 자리에 제주중학교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1924년 제주를 답사한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글에 의하면, 당초에는 명륜당권역이 중학교자리에 위치하고, 그 서남쪽 높은 위치(현 위치)에 대성전권역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 뒤로 계성사와 전사정이 있었다. 향교의 지형을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아지는 경사지여서 ‘홍살문→외삼문→명륜당→대성전→계성사’로 이어지는 ‘전학후묘’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대성전권역 남쪽에 명륜당이 옮겨지면서 ‘좌묘후학’의 배치를 이루고 있어 배치형식이 변형되었다. 그러나 대성전권역은 건물을 포함한 헐문과 담장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연혁·유래

제주향교는 조선 초기(1394년 추정) 가락천의 서안에 위치한 교동에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5곳으로 6회에 걸쳐 이 건한 후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1434년 이도1동에 자리잡고 있던 것을 1582년 활터와 가깝다는 이유로 일도2동 고령밭으로 옮기고, 1668년에는 산지천 범람으로 다시 원위치로 옮겼다. 1725년에는 민가의 화재로 대성전이 불타자 운주당 밑으로, 1754년에는 광양으로, 1827년에는 광양이 비바람에 약하고 거리가 멀다하여 용담1동의 현 위치로 이 건하였다.

대성전은 순조27년(1827) 현 위치로 이 건한 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로 기록상 1725년 대성전 화재 이후 계속 이 건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1827년 이전(즉, 1725년)의 건축형식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배재하기 어렵다. 계성사는 철종 5년(1854)에 지어진 건물로서 정면 5칸, 측면 4칸의 초익공 건물이다. 여기에는 5성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의 신위를 정위로 하여 10철, 송조 6현,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하고 있다.

- 건축 특징

평면은 정면 5칸, 측면4칸으로 전면에 퇴를 둔 건물로 삼면에는 제주석으로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평주와 고주 모두 약한 민흘림을 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귀포와 배면포의 외목도리 장여 하부에 처마의 처짐방지를 위한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제주에서도 대정과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그러나 두 건물의 덧기둥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주향교 대성전 덧기둥 상부에만 다른 건물에서 보기 힘든 문양과 부재가 보이고 있어 이것 또한 이 건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붕 가구는 2고주 7량가인데, 건물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대들보 길이를 축소하기 위해 전후 퇴칸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고주의 간격을 짧게 구성하였다. 대들보 등의 구조 부재는 길이에 비해 세장한 편이지만, 깔끔하게 가공하여(특히, 대들보는 향아리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정제된 느낌을 준다. 공포는 1출목 익공 양식인데, 출목의 간격이 넓어 익공의 길이가 매우 길게 뻗어나가 있고, 내부 보아지 쪽은 하부의 익공이 상부보다 길어 상하가 뒤바뀐 듯한 형상으로 타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전면부의 내부 익공에는 지렛대 형식의 목재를 고여 전도를 방지하고 있다. 주심도리에는 승두를 받쳐 도리의 전도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육지에서는 후기에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다. 익공의 형태 또한 특이한데 쇠서와 첨차 그리고 보머리 등의 형태는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주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처마길이가 건물규모에 비해 짧고, 양곡과 허리곡도 약한 편이다. 합각 지붕의 합각면은 건물에 비해 깊게 들이고 합각의 크기도 축소하였다. 비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주건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제주향교 대성전은 1725년 재건하여 1827년 현 위치로 이 건한 건물로 제주도의 다른 건축문화재(관덕정 1850년 재건, 계성사 1854년, 대정향교 대성전 1835년 중건, 정의향교 1849년)에 비해 역사가 뒤지지 않는다. 건물의 형식과 규모 또한 1고주 7량의 규모로 작지 않으며, 공포의 초가지의 형태와 가구 양식 그리고 덧기둥 등에서 이 건물의 독특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붕의 형태는 비바람에 대비하는 제주도 건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향교 대성전은 건립과 이 건 등의 연혁이 명확하고, 제주도 건축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으며, 이 건 이후 원위치에서 양호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7.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3차)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 금성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나주시 소재 전라남도유형문화재 「나주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으로 '13년 10차 건축분과회의에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수리기록 등 자료보완에 따라 재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3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보류
- 수리기록 등 자료보완 후 재심의토록 함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4.16) : 보류
- 관계전문가(기조사 위원 제외) 재조사를 통한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금성관(羅州錦城館)」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 (나주시 과원동 109-5)
 - 지정일 : 1972. 01. 29.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나주 금성관(羅州 錦城館)
 -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 (나주시 과원동 109-5)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금성관(정청·동익헌·서익헌), 월대, 박석유구
- 재질 : 목조와가, 석재월대, 석재박석
- 수량 : 1동
- 양식 : 목조 / 주심포 다포 절충양식 / 정청 양익헌 월대 박석

라. 현지조사의견

○ 2013.06.07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보완 필요).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2015.11.06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보완 필요).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정청).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금성관에 대한 관련 문헌 기록 등 고증이 미흡
 - 수리 이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11.06	대상문화재	나주 금성관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나주 금성관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11월 30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나주객사의 정문인 망회루 앞 도로변에는, 유명한 나주곰탕 전문식당들이 있어서, 가장 활기차고 번잡한 거리이다.

망회루에 들어서면, 객사 정청인 금성관까지 폭넓은 삼도가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다. 삼도 중간쯤에 담장없이 내삼문이 복원되어 있고 발굴된 또하나의 중문유구가 있다.

고려때 있었던 객관자리에 계속해서 조선 성종때 나주목사 이유인이 객사를 건설하고, 영조때, 1775년 나주목사 이명중이 금성관을 개수하였음을 1976년 해체보수때 종도리안에 있던 상량문 목서에서 확인되었다.

넓은 삼도의 중앙에는 한 단 높여 어로를 두고 자연막돌로 박석을 깔았다. 경내에 발굴된 담장지, 중문지, 우물지 등과 동측의 연못지와 정자 등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있다. 나주목의 행정건물은 객사 서측에 관아건물, 나주향교 및 목사내아가 자리하고 있다. 객사의 안팎시설은 나주목 객사의 위엄과 품격을 갖춘 과거의 모습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금성관은 정면5칸 측면4칸 겹처마 팔작지붕 익공계양식이다. 금성관으로 진입하는 삼도와 월대가 권위성분위기를 압도한다. 금성관 양 옆의 동익헌은 정정보다 정면이 5m정도 길고, 서익헌은 정정보다 6m정도 짧아서 변화있는 비례 조형이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나주읍성의 고지도에는 4대문을 모두 옹성으로 했고, 동문(동정문)과 남문(남고문)은 중층루각으로 되어 있어서 나주가 주요 지역임을 의미한다. 읍성 내 도시구조와 배치가 전통기법을 성실히 적용한 점과 객사경내서 발굴된 삼도, 담장, 내삼문, 동측의 연못지와 건물지 그리고 금성관 좌우의 동익헌과 서익헌의 규모와 형식은 권위와 품위가 잘 갖추어진 객사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삼도에서 월대에 오르면, 계단폭과 너비가 같은 사각형의 사면을 화강암 경계석을 두르고 그 내부에 전돌을 깬 돌출된 판위에 오른다. 월대에서 금성관 기단으로 넓은 계단을 오르고, 기단에서 금성관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어칸 앞과 양편의 협칸 앞에 계단이 설치되어있다. 삼도의 어도에서 월대로 오르는 계단에는 소맷돌이 없으며 월대에서 금성관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소맷돌이 설치되어 있고, 또 금성관 어칸 앞 계단엔 소맷돌이 없다.

금성관 정면의 퇴칸은 트인 회랑이 아니고 개구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른 객사 평면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 개구창호는 4면이 모두 빗살창 2분합과 4분합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금성관의 외부의 시각상의 형태는, 팔작지붕이며, 4면이 모두 창호로 되었고, 정면퇴칸이 터진회랑이 아니며, 어칸과 협칸앞에 계단을 이용해 출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성관은 자연초석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주심포계구조형식과 익공계의장을 보이는 건물이다. 정면5칸, 측면4칸의 기둥배열에서 중앙부의 2개 기둥을 생략하여 대들보를 고주머리에 걸구하고, 그 대들보위에 보를 덧대어서 대들보춤을 보강하여 하중을 받게 하였다. 그 대들보위에 2개의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고 중상도리에 걸구시켰다. 그리고 종보 중앙에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했다.

평주에서는 기둥머리에 헛침차를 걸구하고 소침차와 대침차로 행공침차까지의 살미를 받고 장여와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내부에서는 주두에서 소침차와 보아지로 뜬창방과 퇴보를 걸구하고 뜬창방위에 대침차를 올려서 장여와 주심도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주심포 구조형식과 익공계양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도 금성관의 특징이 된다.

팔작지붕의 안정을 위한 합각보 상중도리와 종도리의 뺨목으로 박공면 구성과 충량없는 추녀기법 등은 창의성 있는 구조 형식으로 사료된다.

천정은 연등천정과 우물천정을 혼합하여 설치되어 있고, 단청으로 현란하고 복잡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나주객사의 발굴현황과 관련문헌을 참고하면, 품격높은 시설이었음이 입증된다. 따라서 금성관이 제 자료들에 어울리는 정청임을 고증, 확인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품위있는 넓은 삼도에 뚜렷한 어도가 있으나 월대와 금성관에 오르는 계단에 소맷돌이 없는 것이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고 사료된다.
- 평면에서, 정면 퇴칸이 터진 회랑형식이 아니고 창호로 설치된 점이 일반 객사형식과 다르다.
- 입면에서 사방의 4면이 똑같이 빗살창의 2분합과 4분합문에 교창을 설치했

음도 재고증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 금성관 어칸과 양협칸 앞 기단에 각각 계단이 설치되도록 하인방을 높이 가 구된 고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현 상황에선 내부의 우물마루 설치 때문에 필요함.)
- 금성관이란 명칭은 양쪽의 동서익헌은 제외된 명칭인가도 조심스럽다. 이유는, 동서익헌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발굴과 고증을 거쳐 복원된 건물이기 에 금성관이란 명칭안에서 함께 평가되어야 될 것 같이 사료된다.
- 금성관의 팔작지붕과 동서익헌과의 규모차이에 따른 조형비례는 문제시 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된다.

■ 종합의견

현재까지 발굴하여 정비된 부분과 발굴진행중인 부분 그리고 고문헌 등을 참 고하면, 격식 갖춘 위엄과 품위가 높은 나주목객사였음을 알 수 있다.

금성관은 오랫동안 군청과 회의실로 사용하면서 평면과 입면을 크게 변형했던 것을 1976년 해체보수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것이다. 그리고 소멸됐던 동익 헌과 서익헌은 2000년대에 복원한 것으로 앞 ⑤의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지적 기재한 평면, 입면, 계단과 구조와 의장 등의 고증이 불확실하므로 금성관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11.06	대상문화재	나주 금성관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나주 금성관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보완 필요)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2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에는 나주객사의 정청이었고,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아래 원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은 주택가와 상가로 형성되어 있다. 현장 조사 당시 객사 경내의 일부는 유구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객사 출입 문루인 망화루, 중삼문, 동익헌, 서익헌 등이 중건, 재건되어 있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나주 금성관은 창건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중수, 개수, 복원 등을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일부 있다.

- 『금성일기』 (1369): 명나라 사신이 유숙한 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동국여지승람』 (1481): 벽오헌 중수기 내용 있음.
-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금성관’을 정청이라고 언급하며 기술한 내용 있음.
- 「금성관중수상량문」 (1775): 금성관을 개수하며 썼음.
- 「망화루 중수기」: 목사 윤흡(재임기간 : 1740~1743)이 씀, 금성관의 외관에 대한 기술 내용 있음.
- 『나주목읍지』 (1815): 금성관을 중건한 사실을 기술한 내용 있음.
- 일제 강점기에 금성관은 우리나라의 많은 객사와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
- 광복 후에 해당하는 1963년 금성관은 부분적으로 개수됨.
- 금성관은 1976년 해체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됨. 현재의 금성관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의 정칸은 가장 넓고, 협칸과 뒷칸은 차례로 좁다. 특히, 뒷칸은 정칸의 반 정도 규모다. 내부는 내진고주를 세웠고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다. 건물 외벽에는 4분합 여단이 문이 달려있고, 기단 정면은 화강암 장대석 바른층, 나머지는 자연석 바른층과 허튼층 쌓기가 혼용되었다. 정면에 난 월대에는 건물의 정칸 폭과 같게 계단이 설치되었고, 정면의 정칸 및 협칸과 좌·우측면의 협칸에는 내부 출입 계단이 설치되었다. 공포는 외1출목 이익공계이고, 기둥 상부에는 헛첨차형 부재 위에 익공살미를 두 조 짙고, 그 위는 운공으로 장식했다. 상부 가구는 2고주 7량가 이다. 대량은 부재 2, 3개를 겹쳐 춤을 높였고, 좌

우측면의 퇴보는 우미량처럼 보이게 곡재를 사용하여 결구하였다. 종보 위에는 화려하게 조각한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도록 했다. 단청은 체적으로 모로 단청인데, 건물 내부 한가운데 부분의 우물반자 양측 대들보에는 문이 장식되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금성관의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거나 조사되어야 한다.

- 금성관에 대한 관련 문헌 기록 조사에 바탕을 둔 건물의 역사와 내력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11.06	대상문화재	나주 금성관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한국건축사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나주 금성관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2월 15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 연혁

나주 금성관은 고려시대의 객관 터에 건립한 나주목의 객사였다. 1475~1479년 (조선 성종 6~10) 사이에 나주목사 이유인이 중수한 기록이 있어 적어도 조선 초기에 건립된 객사임을 알 수 있다. 금성관은 정유재란 이후 1617년 목사 김개가 중건하였고, 정청은 1775년 목사 이명중이 개수한 사실이 있다. 18세기의 개수 사실은 1976년 지붕부 해체보수 때 발견한 상량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정청은 조선후기인 1884~1886년 목사 박규동이 중수한 바 있다. 1920년부터 해방 후까지 금성관을 나주군청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1963년과 1976년에 대대적으로 보수한 바 있다. 2002~2006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 현재 객사 경내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 중이다.

□ 전체 구성 현황

금성관은 5칸*4칸 규모의 정청을 중심으로 6칸*4칸 규모의 동익헌과 5칸*3칸의 서익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익헌과 서익헌은 나주군청 사용시 철거되었다가 20세기 후반에 복원한 것이며, 정청은 부분적인 보수를 거쳤지만 1775년 개수 당시의 형태를 간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있다.

2000년대 발굴 조사 결과, 고려 때의 객관 건물 흔적이 정청 앞에서 발견되었으며, 조선 중기 중건 시의 배치 모습과 19세기 중수 시에 변화된 배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 정청과 동서익헌의 규모와 위치는 변화된 바 없이 현재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누각인 외삼문과 정청 사이에 중문이 있었으며, 중문 좌우로 부속 행랑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청 앞의 월대도 이미 이 시기에 조성했음을 확인했다.

19세기 후반 목사 박규동의 중수 때, 전체적인 배치 구성은 크게 변화했다. 중문과 정청 사이에 내삼문을 설치했으며, 좌우로 행랑채를 두어 부속시설을 마련했고, 동익헌과 서익헌에 직각으로 회랑을 설치했다. 정청 앞 마당을 양 회랑과 전면의 내삼문과 행랑이 에워싼 모습이 되었고, 이 위요된 마당 바닥에 출입로를 제외하고 박석을 깔아 공간의 격을 높였다. 따라서 정청과 내삼문 사이의 행례공간, 내삼문과 중문 사이의 부속공간, 그리고 중문과 외삼문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의 3부분으로 영역으로 나누었다.

현재, 금성관 건물은 정청과 복원한 동서익헌으로 구성되었고, 세 건물의 기단

과 계단, 정청 앞 월대와 계단을 복원했다. 외삼문에 해당하는 망화루, 중문을 복원했으며, 정청 월대 앞은 3도와 같이 박석을 깔아 포장했고, 19세기 중수 시 내삼문 터와 좌우 행랑 터는 기단의 흔적을 남겨 두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발굴조사로 금성관 동쪽에 길이 60m, 폭 20m의 연못 터가 출토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금성관 정청

정청은 정면 5칸 (길이 20.35m), 측면 4칸 (길이 14.7m) 규모의 팔작지붕 집으로 총면적 299.15m² (9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이다. 내부에는 3칸*2칸으로 총 10개의 고주를 세워 내진을 구성했다. 정면 칸은 퇴칸-협칸-어칸-협칸-퇴칸의 칸살로 구성했으며, 측면 칸의 앞뒤로도 퇴칸을 두었다. 내진 주위로 같은 크기의 퇴칸을 두른 평면을 구성했다. 단면 구성은 2고주 7량으로 내진고주와 외진평주 사이에 퇴보를 걸었다. 대량의 1/4 지점에 동자주를 세워 종량을 걸었으며, 종량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혔다. 지붕가구의 측면은 상중도리와 종도리를 축벽 중심선 위까지 내밀어 큰 박공 면을 외진주가 지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는 기둥 하부에 헛침차를 끼우고 중심선상에 네갈소로를 사용하는 등 중심포 계열로 볼 수 있다. 다만 출목도리 하부의 구성이나 헛침차와 초제공의 형태 등은 익공계의 성격도 보이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측면 공포 제공의 내민 길이가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는 좌우 익헌의 박공널과 닿는 부분의 제공을 애초부터 짧게 만들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 건축적 특징과 가치

금성관 건물은 가운데 높은 정청을 두고 좌우로 낮은 익헌을 부가한 객사건물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랐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청이 맞배지붕인데 비해 금성관은 팔작지붕이며, 좌우 익헌의 규모와 지붕 높이도 차이가 나는 비대칭형이다. 좌우 익헌을 가진 객사건물 중 정청이 팔작집인 현존 사례는 금성관 뿐이며, 좌우 익헌 지붕의 비대칭적 구성도 특이하다. 객사건물이 팔작집인 경우는 서산객사나 선산객사 등 소수에 불과하며 그들은 모두 좌우 익헌이 없는 단일형 객사들이다.

금성관의 동서 익헌은 비록 2000년 대에 복원한 것이지만, 그 평면 구성은 일

제 초기의 사진이나 발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존 정청 역시 일제기의 사진 자료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원래부터 팔작지붕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모습은 18세기 중수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면 칸살이부터 상부 가구구조까지 완벽한 팔작집으로 구성된 것이다. 정청의 규모는 국내 최대급이며 공포의 형식은 인근 나주향교 대성전 (보물 394호)과 유사하여, 시대적 지역적 친연성도 갖고 있다.

19세기 중수시의 모습은 외삼문-중삼문-내삼문을 설치해 3개의 영역으로 구획했으며, 이처럼 3문제를 가진 객사의 다른 사례는 전주 풍패관 뿐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청 앞에 넓은 월대를 두고 그 앞 마당을 박석 포장하고, 회랑으로 위요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상징적인 구성이다.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나주 객사는 조선 중기에 중건되어 크게 두 차례 중수를 거치고 근대에 들어와 축소 변형되었으며, 최근에 다시 복원된 변화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성의 차원에서, 또 개별 건축물의 차원에서 매우 독특하고 희귀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복원의 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는 고증 여부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1) 나주 객사 일곽의 구성은 독특하다. 3문제의 구성, 박석 포장의 월대 앞 마당 등은 희귀한 사례이다. 또한 현재 발굴 중인 동편 대형 연못이나 부속 건물들의 존재도 높은 건축사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내삼문은 위치 흔적만 남기고, 중삼문 만 복원하는 등 복원의 일관성이나 기준이 혼란스럽다. 따라서 나주 객사 일곽을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체 발굴조사가 끝나고 일관적인 복원기준을 세워 정비한 이후에 보물지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동서 익헌과 정청으로 이루어진 금성관 건물 자체도 특별한 건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서 익헌의 비대칭적 구성과 정청의 완결성은 여타 객사에서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동서 익헌 전면의 소맷돌을 가진 넓은 계단은 그 고증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동익헌을 단청을 하고 서익헌은 백골집으로 남겨 둔 것도 보존의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3) 금성관 정청만 떼어서 본다면, 그 규모나 형식, 보존 상태 등은 18세기를 대표하는 관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의 유일한 팔작지붕의 정청인

점, 대규모의 완결된 격식을 갖춘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나주향교 대성전과의 친연성도 높아 지역적 특성도 고려할 만하다.

□ 결론

금성관 정청의 건축적 가치는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동서 익헌을 포함한 금성관 전체 건물은 좀 더 확실한 고증과 복원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나주 객사 일곽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발굴 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를 완료한 후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나주 금성관 정청>만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좀 더 연구와 정비를 거친 후에 <나주 금성관>이나 <나주 객사> 일곽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18.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을 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係 池谷 第3寺地 三層石塔)
 -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주시)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지정면적 : 5.88㎡
 - 양 식 : 전탑형 석탑

라. 현지조사의견(2015.02.26)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보류
 - 시대에 대한 정확한 고증 등 보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02.26	대상문화재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석조문화재 보존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南山 茸長溪 池谷) 제3사지 삼층석탑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 년 2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1. 지곡3사지 삼층석탑의 위치

이 석탑이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경주 남산동 산 36-4에 위치하지만 이는 아주 넓은 거대지역을 통칭하는 지번으로 이곳이 용장계이고 근처에 못이 있어 흔히 ‘葦長溪 池谷’이라고 불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주 남산은 신라문화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역사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지역문화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남산에 소재한 문화재는 41개소로 국보 1, 보물 12, 사적 10, 문화재자료 4 개소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석조문화재이다.

이곳에는 아마도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예전에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주 남산이라는 전반적인 역사적 상황과 탑이 있기 때문이다. 가까이에서 건물터가 시굴조사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래서 이곳을 ‘지곡 제3사지’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다.

절터의 남쪽으로는 봉화곡 정상에서 뺀어 내린 계곡이 있고, 남서쪽에는 고위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분지를 이룬다. 동쪽으로는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위산의 8부능선 상에 탑이 위치하므로 산의 경사와 같이 지형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대지의 형상이다.

2. 지곡3사지 삼층석탑의 연혁

이 석탑에 대한 문헌적 기록이나 존재를 확인할 역사적 관련 내용은 없다. 물론 경주 남산에 대한 언급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고 있음은 당연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인인 후지시마 가이지로가 경주 남산을 조사하면서 기술한 내용이 最古의 기록이다. <건축잡지, 1933년 12월>라는 곳에 이를 기술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塼築模倣石의 하나로 다소마멸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노반 이상을 상실한 3층탑신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오바 츠네키치(小場恒吉)가 ‘경주남산의 불적’이라는 책에서 ‘지곡 제3사지’를 ‘용장계 사지 8’로 소개하였다. 또한 “전석탑으로 도괴된 채로 남아 있는데 노반 이상을 상실하고는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각 부분 석재를 잘 남기고 있어서 본래의 모습은 엿볼 수 있다. 중략. 전탑이기 때문에 경쾌한 곡선미가 부족하며 도리어 강건하고 소박한 외관을 지녀 경직된 느낌을 주는 것은 부득이 하다”. 라고 하였다.

이 석탑은 무너져 있던 석탑 부재를 모아 2002년에 복원한 것이다. 상륜부를 제외한 그 이하부재가 완전하였고 노반석을 제외한 모든 것을 원래의 부재를 사용하여 복원하였다 한다. 그런데 석탑발굴 복원정비보고서에 의하면 3층탑신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2층옥개석 윗부분이나 3층옥개석 아랫부분이 이어져 삼층탑신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한다.

3. 지곡3사지 삼층석탑의 현황¹⁷⁾

언제 건립되었고 어떤 사찰에 위치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모전석탑(模塼石塔) 계열의 삼층석탑이다. 이형(異形)의 받침 위에 3층의 몸돌인 탑신과 지붕돌인 옥개석을 올렸는데, 머리장식 부분인 상륜부(相輪部)는 모두 없어진 상태이다.

3.1 지대석

지대석은 주변에 활석으로 보강한 흔적은 있지만 모두 제자리에서 바깥쪽으로 밀려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던 것을 원래의 위치로 10여년전에 복원하였기 때문에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모두 7매의 석재로 구성되었고 외부로 돌출되는 면과 다른 지대석과 맞닿는 면은 반듯하게 가공하였으며 내부는 가공하지 않았다. 내부의 빈 공간에는 30-40센티미터 내외의 활석들을 채워 넣어 적심 역할을 하였다.

북면이나 남면은 2매, 서면은 3매, 동면은 4매로 되어 있고 북서 지대석만 판석의 형태이며 나머지 지대석은 장대석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편에 위치한 지대석에만 기단석이 놓여지는 홈이 마련되었고 동면에는 길이가 짧은 부재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약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복원한 경우 한 변은 2.4미터 가량 된다.

3.2 기단석

일반적인 석탑의 기단과는 달리 지대석 위에 올려진 8매의 방형거석이 기단석이 되었다. 이들은 상, 하단으로 나누어져 각각 4매씩 田字形으로 올려져 있다. 지대석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밀려나와 있는 형태로 상단 기단석 위에는 탑신 받침이 놓여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았다. 상단의 높이가 하단보다 높으며 각 부재의 손상은 없다. 기단석 역시 지대석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돌출되는 면과 서로 맞붙는 면을 반듯하게 가공하였으며

17) 발굴보고서와 지정신청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함

안쪽에는 특별히 가공한 흔적이 없다. 전체적인 크기는 폭 208cm, 높이는 115-119cm 정도로 수평을 이루지는 않고 있다. 생각에는 하단이 두껍고 상단이 좁을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상단이 훨씬 두껍다.

1층탑신 받침석은 기단석 위에 별도로 마련되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3단으로 잘 다듬어진 모습이다.

3.3 탑신석

1층탑신석은 1매석으로 탑신받침 위에 올려져 있다. 지대석과 기단석, 탑신 받침석은 잘 만들어져있다. 1층탑신석과 탑신받침 사이에는 나중에 끼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10센티미터 정도의 할석이 1층탑신석을 지탱하고 있다. 탑신의 상면 중앙에는 방형의 사리공이 있다. 사리공의 단면은 위가 넓고 아래가 약간 좁은 역사다리꼴이며 크기는 윗면 115mm, 아랫면 90mm, 깊이 150mm 정도이다.

2층탑신석은 1매로 크게 깨어져 나간 부분은 없으며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모든 면은 매끈한 육면체로 크기는 너비 62cm, 높이 27cm이다.

3층 탑신석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너무 낮아 마치 2층 옥개석 층급의 상단으로 보인다. 그 위에 바로 3층 옥개석의 하부 층급받침이 있어서 별도로 탑신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도 무방한 것 같다. 복원시에 탑신이 없어서 새로 제작하려 했는데 2층 옥개석과 3층 옥개석의 이음부 맞댄 면이 맞게 치석되어 있어서 이를 3층탑신으로 판단하였다 한다.

일반형 석탑의 경우 보통 모서리에 기둥 모양의 우주가 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탑의 경우는 탑신석 부분에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면석에도 문이나 감실, 혹은 像을 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보이지 않는 단순함을 지니고 있다.

3.4 옥개석

1층 옥개석은 모서리는 깨져 나갔으며 나머지 부분의 상태는 양호하다. 무너져 있을 때에 모습은 기단석과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너지면서 깨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크기는 폭15.6cm이고 두께는 6.2cm로 층급받침은 4단, 상부의 층급(낙수받침)은 5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의 단면의 형태는 직각보다는 둔각에 가깝다. 층

급받침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낙수받침은 위로 갈수록 얇아진다. 제일 상면에 마련된 층급은 두께가 2cm 정도로 2층 탑신받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각 네모서리에는 위에서 반쯤 뚫린 풍탁공이 파여 있다. 크기는 폭 2cm, 깊이는 6cm이다.

2,3층 옥개석 모두 상태가 양호하며 위로 갈수록 체감이 적절하여 안정감을 준다. 층급받침이나 상부 낙수면의 층급받침의 수가 위로 갈수록 줄어든다. 3층옥개석의 상면에 노반공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있다. 이는 12cm정도로 철간공으로 추정되는 역사다리꼴이다.

4. 지곡3사지 삼층석탑의 의미와 가치

이 석탑은 일반적인 석탑의 전형양식에서 벗어난 전탑형석탑이다. 특히 신라의 1,000년 왕도인 경주의 신라석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신라석탑과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模塼石塔’, ‘塼을 모방한 석탑’, ‘塼塔形石塔’ 등으로 부르고 있다. 모전석탑이라는 한국 석탑에서 아주 드문 벽돌쌓기 모습이 보인 전탑형식이라서 주목된다. 이는 옥개석의 상부 낙수면이 일반적인 석탑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모전석탑이란 벽돌을 계단의 모습으로 쌓는, 즉 段形을 이루어 쌓는 벽돌탑의 형식과 유사하여 일컫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와 유사한 탑으로 이들의 상호관계를 비교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탑이다. 이들은 모두 화강암을 벽돌처럼 조그맣게 깎아서 하나하나씩 쌓지 않고 하나의 큰 화강암 석재로 된 옥개석의 윗 부분이나 아래를 벽돌을 내쌓기 하거나 들여쌓기 한 것처럼 된 모습이다.

지곡 3사지 삼층석탑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여러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사진 촬영이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자들 간에 탑의 높이 및 기단의 해석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신라식 전형석탑의 형식을 벗어나고 있지만 탑의 구성은 일반적인 신라석탑과 동일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낙수면과 기단부의 구성이나 조성기법이 일반적인 신라석탑과 다른 이형적인 수법을 하고 있다.

즉 신라석탑의 기단부는 2중으로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으로 이루어졌음에 비하면 이 탑

은 7매석으로 된 지대석 위에 방형의 거석을 4매씩 상, 하단으로 그랭이질하여 맞추어 쌓았다. 각 방형거석은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상하 간 부재의 이음 위치가 서로 어긋나게 하여 통줄눈을 피하도록 하여 맞추었다. 특히 기단부에 나타나는 우주나 탕주, 그리고 갑석이 없다. 또한 기단석 위에 별도로 1층탑신을 받치기 위한 탑신받침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신라석탑의 옥개석은 지붕의 상부인 낙수면이 경사를 이루다가 단부에 이르러서는 약간 반전하고 귀마루의 합각선이 나타난다. 처마의 끝 부분에는 약간 경사지게 절단하고 추녀부분에서는 앙곡이 보인다. 그러나 이 석탑의 경우는 옥개석의 낙수면은 옥개받침과 옥개석의 상부가 모두 계단형의 층급으로 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며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처마의 단부는 사절이 아니라 직절되어 있고 모서리인 전각부에서 안허리곡이나 앙곡, 그리고 반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전탑형석탑의 면모를 여실히 보인다.

따라서 이탑은 전탑형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방형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전형적인 통일신라석탑과 다른 점을 보인다. 특히 이 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의 주변의 산록에서 조영된 장소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석탑 중에서 하나의 맥을 이룬다 하겠다. 다만 서악동 삼층석탑이 문을 표현한 감실과 인왕상이 좌우에 자리하고 있고 마무리가 더 잘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남산동 동삼층석탑이 이 석탑과 더 유사하다 하겠다.

5. 조사자의 의견

- 이 석탑은 옥개석의 상부가 벽돌로 쌓은 계단형태를 하고 있고 기단이 커다란 석재로 되어 이형적인 탑으로 분류되는 아주 드문 예이다. 그래서 이를 흔히 ‘模塼石塔’ 혹은 ‘塼塔形石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조영수법에서 벗어난 특이한 형식이나 나름대로의 완결된 조형성과 특이성을 지닌다. 소위 ‘전탑형석탑’은 의성 탑리5층석탑(보물 77호)의 경우가 최우선하는 경우이고 유사한 석탑은 의성 빙산사지오층석탑(보물327호)을 비롯하여 10여기에 이른다. 그러나 언제 어떤 사찰에 건립된 탑인가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일반적인 한국석탑은 옥개석의 상부인 낙수면의 모습이 목조건축의 지붕처럼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이 석탑은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지붕부분의 낙수면이 계단처럼 층급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석탑의 기단부와도 전혀 다른 이형적인 모습이다. 즉 통일신라시대석탑이 2중기단임에도 불구하고 8개의 커다란 방형석재를 田字形으로 쌓아 큰 차이를 보인다.

- 한국의 전탑은 안동을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이 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역적 맥락을 이룬다. 즉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의 주변의 산록에서 조성된 장소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석탑에서 ‘전탑형석탑’이라는 하나의 계보를 이룬다 하겠다.

-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 등과의 차이라면 치석의 완성도와 감실, 인왕상, 층급의 수효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악동삼층석탑은 감실이 마련되어 그 양 옆에 인왕상이 자리하고 있다. 남산동 동삼층석탑과 이 탑에서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층급의 수는 지곡리사지 석탑이 두 탑보다 보다 더 적다. 한국석탑에 있어서 건립시기와 층급의 수는 연관성이 있다. 즉 층급의 수가 많은 것이 더 오래된 탑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전체적인 치석기법으로 보아 서악동 삼층석탑이 감실과 인왕상이 있어 장엄조식이 마련되었고 마무리가 더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 선행적인 탑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 그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심의결과 있었고 이를 지방문화재 보다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신청하자는 심의결과(2009. 9. 25)를 내린바 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석탑은 국가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란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02.26	대상문화재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미술사(불교조각)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 3사지 소재. 주변에는 보물 186호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보물 187호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분포.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 3사지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의 전탑형 석탑으로서 한국불교건축 및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화재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 년 3 월 10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 소 유 자 : 경주시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산 36-4번지
- 수 량 : 1기
- 규 격 : 전체높이 4.90 m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삼층석탑
- 조성연대 : 고려시대
- 현 상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 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남산 일대에서 高位山 북동쪽에 있는 산정호수 동편의 해발 380m의 평지에 위치한 고려시대 석탑이다. 그 주변에는 칠불암 마애불상군(보물 제 312호),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보물 제 199호),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 1188호), 용장사곡 삼층석탑(보물 제 186호) 등,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절터[寺址]가 산재해 있어, 이 일대 불교사찰이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에 의해 실시되어 이미 도괴된 상태의 석탑에 대한 설명과 각 부재의 수치가 남아있으며, 당시의 상황은 『慶州南山の佛蹟』에 사진이 실려 있다. 이후 2000년과 2001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발굴 및 유구조사를 통해서 석탑의 부재가 수습·정리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지곡 제3사지의 남쪽 구릉에 세워져 있는 삼층석탑은 塼塔을 모방하여 만든 전탑형 석탑이다. 그 세부를 살펴보면, 지대석은 7매의 석재로 이루어졌고 지대석 위에는 8매의 기단석이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각각 4매씩 올려져 있다. 상층 기단석 위에는 3단의 탑신 받침이 있는데, 하단 모서리가 깨진 상태이며, 이 탑신받침 위에 1매의 석재로 된 1층 탑신석이 올려 있다. 그 위에 올려진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4단이며 낙수받침은 5단인데, 옥개석 전각의 네 모서리에는 풍탁이 달려있던 구멍이 뚫려있다.

2층 탑신석 역시 1매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그 위에 올려진 옥개석은 층급받침

이 3단, 낙수받침은 4단으로 모서리가 깨졌다. 3층 탑신은 2층 옥개석 낙수받침의 상단과 3층 옥개석의 하단이 맞닿아서 이어진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렇게 되면 3층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2단이 된다.

복원 이전의 부재상태에서 옥개석 윗면에 마련된 노반좌와 노반공이 확인되어 최상면이 노반받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높이 27cm, 지름 12cm의 상륜부가 출토되었는데, 보주와 철간부분을 석재로 제작한 것으로 상면은 원추형, 하부는 원형이었으며 하단부는 절단되었다. 지금은 새로 제작된 노반석으로 상륜부가 복원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용장계 지곡 제 3사지 삼층석탑은 전탑을 모방하여 만든 모전석탑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석재를 塼의 형태로 만들어서 탑을 세운 분황사 모전석탑과는 달리 화강암으로 전탑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전탑형 석탑’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전탑형 석탑으로는 경주 남산 오산곡 제1사지(남산리사지 또는 傳양피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24호)과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을 꼽을 수 있는데, 경주 외에도 안동, 구미지역에서 유사한 예가 발견된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 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葺)’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가 출토되어 葺長寺와의 연관성이 상정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 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경덕왕대의 법상종 승려 大賢[혹은 太賢]스님이 주석하였던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三國遺事』 권 4 義解, 권 5 賢瑜伽 海華嚴),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경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곡 제 3사지에서 출토한 와당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졌다고 짐작되며, 석탑지에서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찰의 법등이 이어져 왔음을 말해준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 3사지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의 전탑형 석탑으로서 한국불교건축 및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재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5.02.26	대상문화재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문화재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 년 3 월 3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남산 용장계에 위치하는데, 근처에 못이 있어 용장계 ‘池谷’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지명을 반영하여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라 칭하고 있다. 남산 용장계는 용장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유적지임에 틀림없고, 이곳에도 예전에는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탑 주변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와 석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경주남산에 대한 언급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 석탑에 대한 문헌적, 역사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한 조사내용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 후지시마 가이치로는 경주 남산을 조사한 후 「건축잡지, 1933년 12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전축모방식의 하나로 다소마멸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노반 이상을 상실한 3층탑신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바 츠네키치는 ‘경주남산의 불적’이라는 책에서 ‘지곡 제3사지’를 ‘용장계 사지 8’로 소개하였다. 내용을 보면 “전석탑으로 도괴된 채로 남아 있는데 노반 이상을 상실하고는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각 부분 석재를 잘 남기고 있어서 본래의 모습은 엿볼 수 있다.... 중략. 전탑이기 때문에 경쾌한 곡선미가 부족하며 도리어 강건하고 소박한 외관을 지녀 경직된 느낌을 주는 것은 부득이하다”. 고 하였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석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2000년~2001년까지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선행한 후, 석탑 부재를 모아 2002년에 복원하였다. 노반석 아래의 부재는 남아있는 원 부재를 사용하여 복원하였다. 발굴 당시 보주와 철간이 표현되어 상륜부로 추정되는 석재를 발견하였으나 아래쪽 연결부분이 파손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노반석은 3층 옥개석 상부의 구멍을 노반공으로 추정하여 신재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지대석은 7개의 부재로 구성되었고 외부로 돌출되는 면과 다른 지대석과 맞닿는 면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턱을 가공하였으며 내부는 가공하지 않았다. 북면이나 남면은 2매, 서면은 3매, 동면은 4매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복원된 한 변은 2.4미터 가량 된다.

기단석은 상, 하단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는데, 상단이 하단보다 약 2배 가량 층이 높다. 총 8매의 방형석재를 사용하였는데, 상하 각각 4매씩 ‘田’자형으로 설치하였다. 다른 문양은 없고 거친 정다듬만 하여 투박한 면이 있지만 강직함이 느껴진다. 각 부재는 큰 손상없이 양호하다. 기단석 위에는 탑신 받침석이 별석으로 마련되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3단으로 좁아지게 만들었다.

1층 탑신석은 1개의 단일석으로 탑신받침 위에 올려져 있다. 탑신의 상면 중앙에는 위가 넓고 아래가 약간 좁은 역사다리꼴 단면의 방형 사리공이 있는데, 사리공의 크기는 윗변 115mm, 아랫변 90mm, 깊이 150mm 정도이다.

1층 옥개석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크기는 폭 1,560mm이고 두께는 619mm이다. 층급받침은 4단, 상부의 낙수받침은 5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층급받침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낙수받침은 위로 갈수록 얇아진다. 제일 하면과 상면의 층급은 두께가 다른 것보다 얇아 탑신의 고임과 받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단의 단면의 형태는 약간의 둔각을 이루고 있다. 옥개석 네모서리의 내림마루에는 풍탁공이 상하가 관통하여 뚫려있다.

2층 탑신석은 1매의 육면체로 크기는 너비 620mm, 높이 270mm이다. 2층 옥개석은 폭 1,211mm이고 두께는 677mm이다. 층급받침은 3단, 상부의 낙수받침은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3층 탑신석은 2층 옥개석과 한몸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바로 3층 옥개석의 하부 층급받침을 두었다. 복원 시에 탑신이 없어서 새로 제작하려 했는데 2층 옥개석과 3층 옥개석의 이음부 맞댄 면이 맞게 치석되어 있어서 이를 3층 탑신으로 판단하였다 한다.

2,3층 옥개석은 층급받침이나 상부 낙수면의 층급받침의 수가 위로 갈수록 줄어든다. 3층옥개석의 상면에 노반공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있다. 이는 12cm정도로 철간공으로 추정되는 역사다리꼴이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용장계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8세기 중반 이후, 각 부재의 결구방법이 전형양식에서 벗어난 특수형 석탑이 유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석탑 또한 그 유형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용장계지곡 삼층석탑은 전돌을 쌓은 전탑이나 화강석을 전돌처럼 가공하여 쌓은 모전석탑과 달리 큰 화강석으로 벽돌을 내쌓기한 것처럼 가공하여 옥개석을 설치한 형태로 일반적인 석탑의 전형양식과 다른 전탑형석탑이다. 전탑형 석탑의 사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의성 탑리 오층석탑,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구미 죽장동 오층석탑,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이 있고 지방지정문화재는 경주 오야리 삼층석탑, 안동 하리동 모전삼층석탑이 있다.



이 중에서 용장계지곡 석탑과 유사한 사례는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이 있다. 서악동 석탑이 수직상승적인 느낌이 강한 반면, 남산리 석탑은 수평과 수직이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어 두 탑의 제작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추정 가능케 한다. 기단석의 형식은 3기의 석탑이 일부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탑의 비례는 서악동 석탑과 유사한 반면 탑신받침은 남산동 석탑과 유사하여 두기의 석탑에서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비례와 세부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작시기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악동 삼층석탑



남산동 동 삼층석탑



남산 용장계지곡 삼층석탑

이처럼 용장계지곡 삼층석탑의 건립시기는 경주지역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서악동 삼층석탑과 남산동 동 삼층석탑이 9세기 경으로 편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용장계 지곡 석탑의 건립시기 또한 9세기 경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석탑의 옥개받침의 단수가 위 2기보다 작고 비례가 수직 상승감이 큰 것으로 보아 서악동과 남산동 석탑보다는 늦은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탑은 모전탑 계열의 형식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서악동 석탑과 남산동 동 석탑을 통해 제작시기의 추정이 가능하고,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2차)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주변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1.21) : 부결
- 재조정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훈령 제356호, '15.06.30)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요청

(2) 조정 대상 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정내용
1차 (16.01.21)	보물	161	강화 정수사 법당	○ 능선이내 지역의 허용기준은 1구역으로 설정하고, 능선이외 지역의 경우 그 외 지역 설정
금차	보물	161	강화 정수사 법당	○ 능선 이내 지역의 허용기준은 문화재구역 및 일부 1구역으로 설정 - 능선 이내 지역의 정수사 진입로 주변은 1구역 존치 ○ 능선 이외 지역의 허용기준은 그 외 지역 설정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허용기준 조정(안) 각 1부

[붙임]

강화 정수사 법당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61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86
- 지정 일 : 1963. 01. 21.

나. 검토의견

- 금회 신청안은 진입부에 대한 주변 지형 및 경관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된 것으로 판단됨.

▣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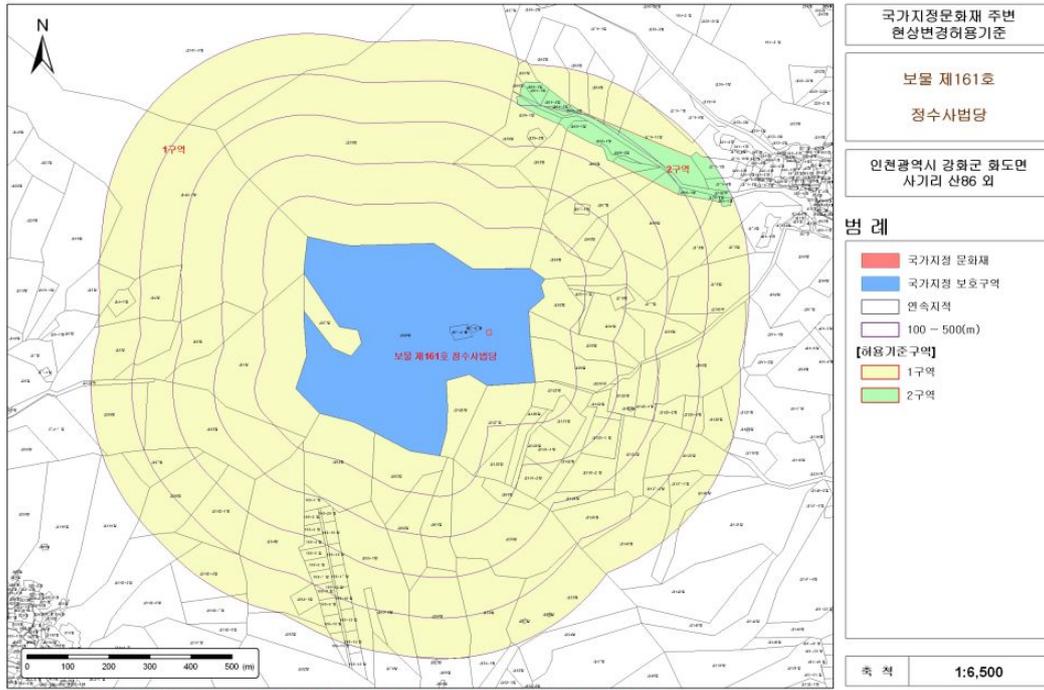
【 신 청 】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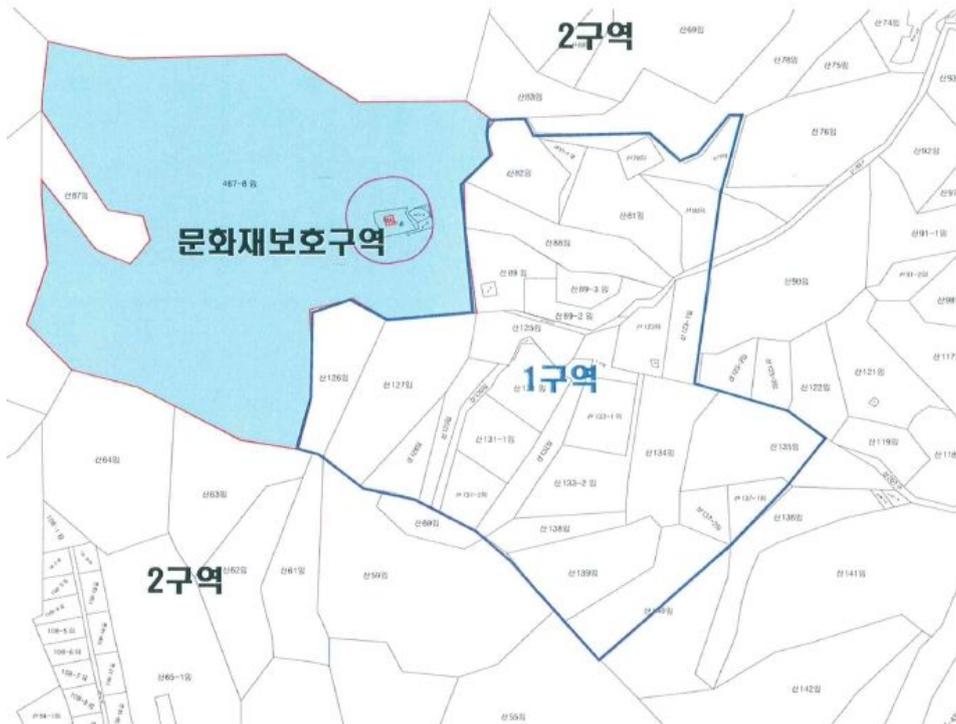
【 검 토 】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 신 청 】



※ 파란색 테두리선 : 1구역, 그 외 2구역

20. 전주 풍패지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전주시 소재 보물 「전주 풍패지관」 서익헌에 대하여 2015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주 풍패지관」 서익헌에 대하여 2015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전주 풍패지관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1번지
 - 지정일 : 1975. 03. 31.
- (2) 용역개요
 - 용역명 : 전주 풍패지관 서익헌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15. 4. 27. ~ 12. 16.
 - 안전진단 범위
 - 관련문헌 조사 및 분석
 - 하중 및 성능저하 현황조사 / 변위, 변형 조사
 - 비파괴조사(드릴저항시험, 함수율 측정, 수중감정, 초석강도조사)
 - 지반조사
 - 구조안전성 검토
 - 보수보강(안) 제시

(3) 용역 결과

○ 종합(D등급)

- :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임
- 과대 처마하중으로 창방의 처짐 및 공포의 회전변위 발생
- 기둥과 창방의 결구구속력 감소
- 지붕형태 상이 및 대량과 퇴량이 고주에 결구됨에 따른 수평변위 발생
- 창방의 처짐으로 기둥과 창방의 결구부분의 사괘 파손 발생
- 횡력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지속적인 수평변형 가능성 높음

라.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계산에 있어 구체적 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21.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매각에 따른 불상 이전 타당성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매각에 따른 불상 이전 타당성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매각에 따른 불상 이전 타당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쟁점사항
 - 본 문화재가 동산문화재로 관리해야하는지 건조물 문화재로 관리해야하는지 여부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해제 여부(동산문화재인 경우 해제 불가피)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산면 남명리 산 1-7번지 천황사
 - 지정일 : 1995. 01. 10.
 - 문화재 내용 및 특징(1994년 제4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 지정당시 현상은 광배부분은 없어졌고 불두와 양손부분은 파손되어 주변에 흩어진 것을 수습하여 수리복원 하였으며, 불두의 나발이 일부 탈락
 - 석불좌상은 광배만 없을 뿐 대좌와 신부로 이루어진 통일신라시대 작품
 - 불상의 대좌는 상대·중대·하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이는 사자좌(獅子座)를 하고 있음
 - 조사자 : ○○○
 - 규격/크기 : 총 높이 123.5cm, 두 높이 25cm, 폭 61cm, 대좌높이 40.5cm

○ 관리이력

- 1995.01.10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13호 지정(문체부 고시 제1995-2호)
- 1997.09.09 : 대응전 개축 후 석불좌상 안치 보호
- 2000.07.20 : 석불좌상 보수방안 검토(약사불을 비로자나불로 변경)
- 2008.12.17 :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및 지형도면 고시
 - 소재지 및 보관장소 변경(남명리 산 95-6 → 산 1-7)
- 2010.08.25 : 문화재명 변경(밀양 천황사 석불좌상→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2011.01.05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 농가주택 신축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 : 1회 부결 보완 후 가결

○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계	비고
1997	대응전 증·개축	126,000	100,700	226,700	
2002	보호각 단청	84,000	36,000	120,000	
2004	산신각 개축	35,700	15,300	51,000	
	석축정비, 진입계단정비	100,000	42,857	142,857	
2016	담장 및 대문설치	56,000	24,000	80,000	
합 계		401,700	218,857	620,557	

(2) 석불 매매 개요

- 매도인 : ○○○(밀양 천황사 주지)
- 매수인 : ○○○(사천 백천사 주지)
- 매매사유 : 천황사 경매에 따른 불상 매각
- 불상이전 : 밀양시→사천시
- 추진경과 : 매매계약 체결(2016.01.18 / 계약금액 6억원)

라. 행정사항

- 본 석불의 경우 동산문화재 및 건조물문화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 할 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지원된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은 환수 조치할 예정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본 석불은 역사성과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래의 자리에 있음이 타당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3-022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남 창원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예초기 보관용 창고 설치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1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1건	허가 5건 변경허가 1건 조건부허가 2건 불허 3건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원 (창녕군수)	<input type="checkbox"/> 예초기 보관용 창고 설치 <input type="checkbox"/> 위치 : 창원군 창녕읍 술정리 377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 창고 설치 - 건축면적(연면적) : 30㎡(30㎡)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높이 : 2.5m - 용도 : 예초기 보관 창고	허 가	'16.03.15
경주 석굴암 석굴	경북 경주 (KBS한국방 송 대구방송총국 장)	<input type="checkbox"/> 방송통신중계기 설치 <input type="checkbox"/> 위치 : 경주시 진현동 973-8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 설치부지 : 9㎡ - 전주(16m) 1본 설치, IP주(7m) 1본 설치 * 중계기 395*535*270(mm)	허 가	'16.03.1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남 거창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증축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4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증축 - 건축면적(연면적) : 60.39㎡(60.39㎡) *기존건축물 면적 : 99.94㎡ - 구조 : 목구조 - 높이 : 5.57m	허가	'16.03.15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경기 평택시 (○○○)	<input type="checkbox"/> 사과나무 식재 ○ 위치 :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04 외 3필지 ○ 사업내용 : 사과나무 식재 약2,500주 - H ≍ 2m, R ≍ 4cm ○ 사업면적 : 6,252㎡ * 사업을 위한 절·성토 없음	허가	'16.03.15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 선사능운탑비	경북 예천 (예천군수)	<input type="checkbox"/> 명봉리 진입로 및 편의시설 정비 ○ 위치 :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1-1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확포장 : L=588.2m, B=5m - 주차장 정비 : 쇄석포장 1700㎡ - 휴식공간 조성 : 데크설치 15개소 - 세천정비 : H=1~1.2m, L=183m - 수로박스 확장 - 가드레일 설치 : H=0.8m L=180m	허가	'16.03.15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광주 동구 (○○○)	<input type="checkbox"/> 다가구주택 건립(허가사항 변경) ○ 위치 : 광주 동구 지산동 447-4번지 ○ 대지면적 : 278㎡ ○ 건축면적(연면적) : 165.80㎡(410.60㎡) → 165.75㎡(460.10㎡)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4층 / 16.9m ○ 그 외 변경사항 · 평면 구획, 용도변경 및 창호 일부 변경	변경허가	'16.03.0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영양 현리 삼층석탑	경북 영양 (영양군수)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배수로 정비 ○ 위치 : 영양군 현리 398-3 외 3필지 ○ 사업내용 - 절·성토 : -0.4m ~ -0.8m - 수로관설치(0.4*0.4) : L=406m - 맹암거(D=150) : L=340m	조건부허가 (굴착시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16.03.15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의성 (고운사주지)	<input type="checkbox"/>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위치 :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 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방재시설 설치 : 카메라설치 22개소, 방범센서 2개소, 감지기설치 13개소, 분전반 설치 8개소 등 - 관로공사 : 터파기 깊이 0.78m, 폭0.78m	조건부허가 (터파기 시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16.03.15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남 거창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3-4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03.63㎡(143.2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높이 : 7.2m	불허	'16.03.15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남 거창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3-5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03.63㎡(143.2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높이 : 7.2m	불허	'16.03.15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남 거창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3-6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03.63㎡(143.2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높이 : 7.2m	불허	'16.03.15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